

#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관리 주체 정했다

### 과적단속, 이순신 대교 등 여수·광양시 구역별 담당

### 과속단속, 전남경찰청과 여수·광양 경찰 합동으로

지자체간 의견을 보여 온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관리 주체가 결정됐다.

전남도는 이순신대교 등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주요 시설물을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 23일 '유지관리 TF팀' 합동회의를 개최한 결과 유관기관 간 과적·과속 단속 및 가로등 관

지방경찰청, 여수·광양경찰서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축제 행사 등 특별한 기간 동안에는 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협의해 경관조명 등을 연출하기로 합의했다.

초기 5년간 매년 1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지관리비용 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 등을 재검토한 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유지관리 TF팀 구성은 지난 달 개최한 도 건설방재국장, 여수·광양시

부시장 합동 유지관리방안 협의의 석상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전남도와 도로관리사업소, 여수시, 광양시 공무원 등 22명으로 구성된 유지관리사무실이 존속되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매월 1차례씩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전남도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처리를 위해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여수·광양시와 합동으로 가로등 점멸 상태, 배수로 등 도로시설물 적정시공 여부, 교량 주탑 호이스트 및 난간 안전상태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모두

마치고 점검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지난 달 30일 준공처리한 바 있다.

윤진보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과적·과속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나서 교량 수명이 100년 이상 되도록 내구성을 확보해 후손들에게 큰 자산을 물려 줄 계획"이라며 "1조703억원을 들여 건설된 세계 최고의 이순신대교 주탑과 야간 경관조명 등 교량 시설물을 지역의 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네덜란드産 신제품 튜립 3종 첫선

### 26일 순천정원박람회 공개... 풍차와 명소 부상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네덜란드 정원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신제품 튜립을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정원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오는 26일 네덜란드 국가의 날에 맞춰 네덜란드 정원에서 네덜란드 현지에서 가져온 3가지 신제품 튜립 3000본을 선보인다.

이들 튜립은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새로운 품종으로, 국내에서 신을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네덜란드 대사관은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 신제품 튜립의 공식 품종 이름 공모에 나서 당선작에는 네덜란드 왕

복 항공권 2장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어 이미 화제가 됐다.

이들 튜립은 조직위와 니르쿠르 네덜란드 정원 디자이너가 공동 작업으로 심을 예정이다.

또 꽃양귀비 1만1000본도 함께 심을 계획이다. 이들 꽃양귀비는 7000본은 네덜란드 현지에서 가져왔고 4000본은 순천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했다.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11개 세계정원 가운데 하나인 네덜란드 정원은 풍차와 아름다운 튜립으로 개장 초반 최고의 명소로 부상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이들 튜립의 개화기가 끝나 구경 시기를 놓친 관광객들이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

### 연매출 100억원대 '쑥쑥'

#### 개장 9년만에 급성장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가 호남권 농산물 수출 전진기지 역할 뿐 아니라 이제는 지역에서는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처리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4년 5월 개장한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는 운영 초기 수출농산물 물량 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수출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 등에 따라 농산물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연간 100억원대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파프리카를 비롯한 지역농산물 100만 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했으며, 서울 등 수도권 학교급식 자재로 매실, 애호박, 양상추, 수박 등의 지역대표 농산물을 납품해 32억원(1024t)의 수입을 올렸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 경영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학교급식 급식 확대에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광양시는 내년도까지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HACCP인증 등 목표로 위생 및 안전시설, 상품화 시설 등을 구축하고 파프리카, 학교급식자재 등의 연간 처리 물량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만6000t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고흥 점암면 모내기 한창

고흥군 점암면의 한 농민이 22일 오후 이랑이로 모를 심고 있다. 고흥군은 22일까지 전체 1만3900ha의 논 가운데 5788ha에서 모내기를 끝내 41.6%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양파와 조사료는 90% 정도 수확이 완료됐고 보리와 마늘은 이제 막 수확작업에 들어갔다.

(고흥군 제공)

## 여수 대교동에 돌산 갯김치 특화거리

### 꽃밭 만들고 화분 설치

여수시 대교동이 꽃향기 넘치는 돌산갯김치 특화 거리를 조성했다.

대교동은 돌산갯김치를 홍보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돌산갯김치 제조 및 판매업체가 밀집한 돌산대교 입구에서 남산초등학교 사이의 공터에 갯김치 꽃밭을 만들고, 도로가에 화분 40개를 설치했다. (사진) 이 지역은 당초 불법도로점용, 잡초나 쓰레기 방치로 민원이 자주 제기됐었다.

대교동은 토지소유자, 돌산갯김치 판매점 대표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난해 말 과중, 꽃밭을 조성했다. 또 '돌산갯김치거리' 간판을 제작해 돌



산갯김치를 홍보하고 인근에 펜지, 석죽, 맨드라미, 양귀비 등 다양한 꽃을 심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대교동 관계자는 "갯꽃 단지 조성으로 우리시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돌산갯김치를 홍보하는 물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새만금산단 석탄재 재활용 사업 시민·환경단체 위원회 구성 '탄력'

### 일부 물량 시험 반입

지난 4년간 진전되지 못한 '새만금산단단지 석탄재 재활용사업'이 환경단체 인사 등이 참여한 위원회 구성으로 사업 추진의 물꼬를 트게 됐다.

23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에 따르면 사업단과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은 2009년 12월 서천 회령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200만㎡를 새만금산단단지 내 배수층재로 활용키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매립으로 새만금 토양은 물론 수질도 오염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석탄재가 새만금에 매립되면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빗물이 유입돼 침출수가 해양으로 흘러들어가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입장 차이가 크자 사업자와 시민·환경단체들은 최근 7차에 거친 비공개회의를 거쳐 '새만금산단단지 석탄재 재활용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바지선 8대 분량(2만㎡)이 새만금산단단지 2공구 매립현장에서 시험반입됐다.

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매립으로 새만금 토양은 물론 수질도 오염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석탄재

가 새만금에 매립되면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빗물이 유입돼 침출수가 해양으로 흘러들어가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입장 차이가 크자 사업자와 시민·환경단체들은 최근 7차에 거친 비공개회의를 거쳐 '새만금산단단지 석탄재 재활용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바지선 8대 분량(2만㎡)이 새만금산단단지 2공구 매립현장에서 시험반입됐다.

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매립으로 새만금 토양은 물론 수질도 오염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석탄재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전북

## 35사단 이전 논란 7년만에 '종지부'

### 전북도, 공유지 수용결정...임실군 주민 법정 다툼도 일단락

35사단 이전논쟁과 맞물려 수년째 논란이 됐던 임실군 소유 공유지에 대한 토지수용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박형배 건설교통국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지연됐던 임실군 임실읍내 공유지 118필지(110만9729㎡)에 대해 전주시가 토지수용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 수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시·군 등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수용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최종결정은 전주시의 수용안 제출과 수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개월 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국장은 "35사단 이전부지 공사가 거의 끝나 오는 8월에 준공을 앞둔 만큼 사단 내 부지에 포함된 일부 공유지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주시 송전동에 있는 35사단과 전주시는 2006년 임실군 임실읍내 대곡리·정월리·감성리 일대 7.35㎢(약 223만평)의 부지로 사단을 이전하기로 하고 그 동안 이들 부지를 매입,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임실군은 군부대의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을 의식, 사실상 공유지 매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군

유지 매각 문제가 타결되지 않았다.

도가 이날 발표한 수용예정 부지는 임실군 소유의 공유지 110만9천㎡로,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이 공사의 사업자 측은 매입금액으로 29억9천여만 원을 제시했다.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등 7.35㎢에 들어설 35사단 전체 부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땅으로, 애초 군 막사와 도로가 들어설 부지다.

임실지역 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국방부 등을 상대로 한 '실시 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와 '본안소송' 등 법정다툼도 대부분 일단락돼 이번 토지수용을 통해 35사단 이전사업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단신

### 북남원 나들목 진입로 등 도로망 개설 확충

남원시가 북남원 나들목 진입로 등 주요 도로망 개설 및 확충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남원 나들목 진입로 개설 사업은 총사업비 231억원을 들여 대산면 운교리 북남원IC 입구에서 88고속도로를 지나 신정동 서부우회도로까지 3.5km를 4차선으로 연결하는 공사다.

총 3.5km 중 사업비 71억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 구간 1.1km는 오는 11월 개통할 예정이다.

사업비 332억원의 고기~운봉 국지도 개량사업은 2017년 완공예정이며, 20억원의 국도 19호선·시도 15호선 교차로 설치사업은 2014년 착공한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 정읍농기센터 차(茶) 현장체험학습 큰 호응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이달부터 11월까지 정읍 차(茶) 현장체험학습을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자생차 현장체험학습에서는 녹차, 발효차, 떡차 등의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타 지역 도시민 단체 30명 이상이 신청하면 7개 다원에서 자생차 체험도 할 수도 있다.

오는 25일에는 서울지역 도시민 45명이 덕천면 소재 '황토현다원'에서 체험활동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4일에는 혈액암협회와 전북대학교 의사, 혈액암 환우가족들 60여명이 '혈액암 완치나들이'를 갖기도 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부안군 소득 5천만원 이상 농가 5천호 육성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23일 "농어가소득 5000만원 이상 5000호 육성을 위해 작물별 재배력을 제작,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농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농

가에 보급된 재배력에는 총 21개 작물에 대해 다뤄졌다.

작물별로 벼, 콩, 옥수수, 고구마, 시설감자, 참깨, 오디뽕, 인삼, 오미자, 더덕 등 식량 및 특용 관련 10개 작물과 채소의 경우 고추, 배추, 상추, 토마토, 딸기, 마늘, 양파, 수박 등 8개 작물이다. /부안=정재용기자

### 전북교육청, 기간제 교사 성과 상여금 지급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던 성과 상여금이 기간제 교사에게 처음으로 지급됐다.

전북도교육청은 23일 "기간제 교사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공립·사립 초·중·고교(공립 유치원 포함) 기간제 교사 1천505명에게 모두 19억 5213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대상은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 전원이다. 지급액은 일반교원 14호봉에 해당하는 190만800원을 기준으로 3등급으로 평가, 등급별로 근무기간에 비례해 정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부안수협 '알짜경영'

### 작년 순이익 13억...13년째 흑자행진

부안수협(조합장 김진태·사진)이 지난해 13억4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면서 13년 연속 흑자와 5년 연속 출자배당을 실시, 지역 수협의 모범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수협은 조합원 배당금 4억7000만원, 수산종묘양류사업 1억5000만원 등 모두 6억3500만원을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내놓았다.



4982억 원으로 377%. 대출금 역시 1114억 원에서 4299억 원으로 385% 증가하는 등 자산규모가 5553억원의 거대 조합으로 성장했다.

김 조합장은 "진정한 어업인의 대변인으로, 조합의 뿌리인 조합원들과 언제나 소통하고 지원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제 수협이 향토기업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zj0681@



#### 고창 대산면 이팝나무 만개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이팝나무가 올해도 하얀 꽃을 만개해 지나가는 이의 눈길을 붙잡고 있다. 꽃이 필 때쯤이면 초록색 잎이 보이지 않을 만큼 풍성한 모양과 아름다운 수형으로 사진작가와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kwangju.co.kr